



# 명인·명창과 함께하는 국악의 향연

국창 조상현

임방울의 소리향연 예술공연  
국창 조상현·김찬미 명창 출연  
판소리·무용·가야금 등 풍성  
22일 빛고을노인건강타운서

국창 임방울의 소리향연 공연이 오는 22일 오후 1시 빛고을노인건강타운 공연장에서 열린다. 풍물판굿과 쑥대머리, 퓨전국악, 부채춤, 판소리, 기악산조, 가야금병창, 소고춤, 민요 등 국악의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풍성한 무대다.

임방울국악진흥회가 개최하는 이번 공연은 임방울 국악제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서정금 명창이 사회를 맡고 김찬미(판소리), 마미숙·남궁정에·양은희·정소정(민요), 이래경(가야금), 정세아·박소희(무용) 등 국악인이 출연한다.

첫 무대는 지난해 농악대상팀(국회의장상) 박종완외 5명의 신명 나고 흥겨운 풍물판굿이다.

국창 임방울선생의 애장곡 쑥대머리를 제 13회 대통령상 수상자 김찬미 명창과 정세아 명인의 살풀이춤과 곁들여 만나볼 수 있다.

춘향가 중 동헌경사 대목, 강준원 등 4명의 전통과 현대가 융합된 퓨전국악 연주에 이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한 김민주 등 6명은 민족의 대화합을 기원하고 화사하게 피어나는 무궁화 꽃을 형상화하는 화려한 부채춤으로 무대를 꾸민다.

이외 제28회 대통령상 수상자 서정금 명창이 심정가 중 심봉사가 황성 맹인잔치에 올라가는 대목을, 역대 기악일반부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김승호 명인 등 3명의 기악산조 합주, 제29회 문화체육부장관상을 수상한 이래경 명창이 가야금병창 심정가 중 방아타령 대목을 선사보인다.



지난해 11월 부산 금정문화회관에서 열린 국창 임방울 소리향연 공연.

특별출연으로 국창 조상현 선생이 판소리 한 대목을 들려준다. 판소리 하나로 민중의 희로애락을 노래한 21세기 대한민국 최고의 가객으로 불리는 조 선생은 이날 판소리 사설가 가운데 심금을 울리는 대목을 뽑아 들려준다.

공연 대미를 장식할 무대는 마미숙, 김찬미, 서정금, 남궁정에, 양은희, 정소정, 이래경 명창과 전 출연자가 함께하는 흥겨운 남도 민요다. 출연자들은 남도 민요 가락에 맞춰 흥타령과 육자배기, 삼산은 반락, 개고리타령, 진도아리랑 등 곡을 열창한다.

이번 공연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

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 판소리가 발아하고 꽃피었던 국악의 희로애락을 노래한 21세기 대한민국의 최고 가객으로 불리는 조 선생은 이날 판소리 사설가 가운데 심금을 울리는 대목을 뽑아 들려준다.

김중채 이사장은 “나라 잃은 설움과 동족상잔 등 암울했던 시기에 소리 하나로 민중의 애환을 달래 주었던 광주가 낳은 국창 임방울 선생의 숭고한 예술혼을 되새겨보는 뜻 깊은 공연을 통해 코로나로 지친 피로감을 해소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는 전화(062-521-0731~2)로 하면 된다. /이나라 기자

## 효석 채중기 '회상' 전 25일까지 금봉미술관

효석 채중기의 '회상 reminiscence' 이 금봉미술관 1전시실에서 열리고 있다.

작가는 현대사회의 다양하고 변화로운 상황과 현대인들의 생활패턴에 관한 스토리 그리고 인간 내면의 심성과 본능적인 감각에 초점을 맞추고 그 내용들을 추상표현주의적 언어로 펼쳐 내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지난 2019년 중국 충칭 베이베이 미술관에서 개인초대전 '흔돈과 질서' 를 개최한 후 3년만에 갖는 개인전이다. 당시 중국에서 흔하지 않은 추상표현주의 작품 전시로 현지인들에게 많은 호기심을 야기시켰다.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과거의 작품과 최신작을 함께 선보인다. 이를 통해 자신의 예술세계를 종합적으로 통찰하고자 한다. 시간이 흘러 표현 방법이 약간은 다를 수 있지만 전반적인 맥락은 같다.

작가가 작품활동에서 즐겨 쓰는 마대는 세계 각국에서 수입해온 곡물이나 약재를 담은 포대다. 깔끔한 기성 캔버스보다는 중국, 인도, 남미 등 여러 나라에서 갖가지 내용물이 담겨 온 포대 자루에 그림을 그려 넣는다.

그의 작품은 전반적으로 추상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구성적인 요소가 엿보인다. 생활 공간의 일부뿐일 수도 있고 인체의 일부일 수도



채중기 '상황12'

있다. 작가는 고정된 인간사를 인정하지 않는다. 인간의 욕망 혹은 상황에 의하여 항상 다양하게 변화되는 현대인의 알 수 없는 심성을 회화로 풀어내고 싶은 것이다.

채 작가는 전남대학교에서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여러 대학에서 강의를 해왔다. 1990년대 초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시작했으며 뉴욕 프랫 인스티튜트에서 M.F.A 학위를 수여 받았다. 귀국 후 수차례의 개인전과 그룹전과 초대전에 참여해 왔으며 전시참여 횟수는 300여 차례에 이른다. 현재 은암미술관 관장으로 재직 중이다. 전시는 오는 25일까지. /이나라 기자

## 우시온 개인전 '멜랑콜리아' 내달 2일까지 드영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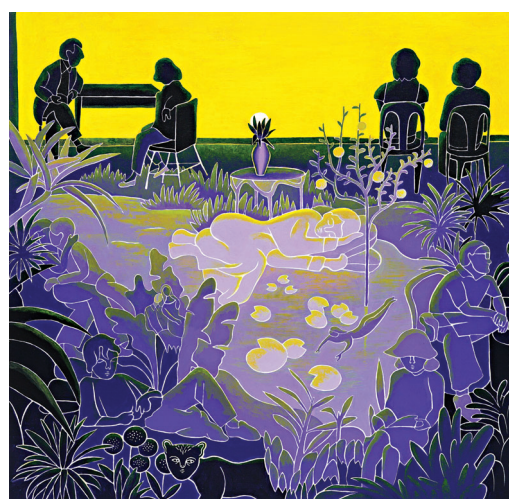
우시온의 4번째 개인전 '멜랑콜리아' 가 광주 드영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다.

청년작가 우시온은 경남 김해 출신으로 어릴 적 타고난 예술적 감각과 재능을 보여주며 미술영재로 주목받아왔다.

소년작가에서 청년작가로 성장한 작가는 4번째 개인전에서 자신의 신작 28점을 선보인다. 작가는 자신이 느낀 인간 내면의 감정을 작품 소재로 한 멜랑콜리아 신작 시리즈를 통해 삶에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자기 탐색의 기회와 내면 성장의 계기를 제공한다.

흔돈 속에서 피어나는 인간 내면의 감정을 탐구하는 우시온 작가는 우리 인간이 우울한 감정이나 상태를 외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느끼고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음을 발견한다. 작가는 이러한 관점에서 멜랑콜리아 인간의 내면적 성숙을 위한 거울이 될 수 있음을 예술적 시각언어로 전달한다.

전시의 대표적인 '멜랑콜리아 정원' (2022)에서는 사용한 재료의 특성과 작품의 주제가 연상



우시온 '한없이 노란 블루'

되는 요소를 찾아볼 수 있다. 작가는 짝 잡으면 손 틈 사이로 빠르게 사라지는 모래의 재료 특성을 활용했다.

"나는 정말 행복한가?" 에 대한 고민으로 출발해 인간의 다양한 감정을 탐색해봄으로써 자신만의 행복의 답을 찾아가는 우시온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슬픔과 고독, 우울의 감정 모두 행복의 범주에 속해있다는 것을 전한다.

전시는 드영미술관 2전시실에서 진행되며, 10월 2일까지 관람할 수 있다. /이나라 기자

www.jndn.com 인터넷으로 기사를 다시 볼수 있습니다

알뜰한 정보! 행복한 신문!

상쾌한 아침을 여는 신문!  
독자에게 새롭게 정확한 뉴스!!  
소신과 대안이 있는 정보!!!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여론을 선도하며,  
소통과 화합을 통해 지역신문 발전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 ◆ 사·군지사

광산지사	010-3601-1102	장흥지사	010-3613-6114
목포(갑)	010-3272-2765	강진지사	010-6646-1241
목포(을)	010-3635-6777	해남지사	010-8181-2627
여수지사	010-8648-1236	영암지사	010-4624-8409
순천지사	010-2547-7890	무안지사	010-3621-8989
나주(갑)	010-7706-2410	함평지사	010-3600-0500
나주(을)	010-3713-7458	영광지사	010-8666-2882
담양지사	010-8004-9885	장성지사	010-3666-1300
곡성지사	010-6764-6100	완도지사	010-5619-7020
구례지사	010-6636-3039	진도지사	010-3624-4777
고흥지사	010-9151-2828	신안지사	010-4627-1472
화순지사	010-3100-0386	보성지사	010-5259-6441

### M 전남매일

본사 주소 : (우)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자로 398 (사동)  
 기사제보 : T. 062-720-1050 / F. 720-1080 / jndn@chol.com  
 광고문의 : T. 062-720-1017 / F. 720-1020 / jnm1000@hanmail.net